



[종합]
LG 미래사업가 만난
구광모 회장
04



코스피 2044.61 (0.00)	→	코스닥 632.95 (0.00)
금리 (국고채 3년) 1.28 (+0.01)	↑	환율 (원·달러) 1188.80 (-7.40) (11일)

‘사상초유 환매 중단’ 라임운용 해법찾기 고심

부동산 등 우량 자산매각 검토

〈선순위 채권〉

오늘 간담회서 공식 입장 발표
투자자 피해 조 단위 확대 우려
자산 매각 통해 일부 해결 예상

국내 1위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이 수 천 억원대 사모펀드의 환매를 중단한 이후 부동산 우량 자산 매각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 피해가 불가피한 라임자산운용은 빠른 시일 내 자산 매각 등이 포함된 환매 계획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라임자산운용은 오는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펀드 환매 중단 사안과 관련한 공식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공식 입장과 대응 방안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0일부터 라임자산운용은 모펀드 2개에 재간접 투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화면.
/홈페이지 캡처

자된 6200억원 규모 펀드의 환매를 중단했다.

사모채권을 주로 편입한 모펀드 ‘플루토 FID-1호’와 메자닌(주식과 채권의 중간 형태인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을 주로 편입한 모펀드 ‘테티스 2호’에 재간접 투자된 펀드들이 대상이다.

이어 11일에는 해외 재간접 방식으로 조성된 200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 펀드에 대해서도 환매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자자 피해

규모가 ‘조원 단위’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환매 중단은 라임자산운용 신뢰 저하에 따른 ‘펀드린’이 출발점이었다. 투자자 자금은 빠져나가는데 해당 펀드가 투자한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메자닌 자산은 유동성이 적어 환매 금액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일시적 유동성 문제에 따른 환매 중단이 펀드의 파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 상황은 늦어질 수 있으나 메자닌은 만기까지 기다리면 원금은 받을 수 있는 투자자산이다.

라임자산운용 역시 환매 대응을 위해 유동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자산을 저가 매각하면 오히려 투자자 손실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테티스 2호’가 CB를 인

수한 코스다 제약·바이오 업체 헬릭스미스는 청약·납입일인 지난해 9월 21일과 비교해 현재 주가가 반토막이 난 상태다. 게임업체 썸에이지, 제넥신 등도 투자 시점과 비교해 주가가 50% 이상 하락한 상태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라임자산운용이 우량자산 매각을 통해 환매 중단 사태를 일부 해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자산을 팔기에는 늦었다고 판단, 다른 우량 자산을 파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면서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이미 사모펀드를 만들어 라임자산운용이 내놓은 우량자산을 받아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2면에 계속〉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현대차, 창사 52년 만에 8000만대 판매

1967년 12월 설립된 현대자동차가 창사 52년 만에 글로벌 판매 8000만대 기록을 달성했다. 13일 현대차

에 따르면 창사 이듬해인 1968년 미국 포드의 코티나를 조립 생산해 국내에서 533대를 판매한 것을 시작

으로 올해 8월까지 국내외 시장에서 판매한 누계는 8012만417대에 이른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 전시된 차량들.

/연합뉴스

사모펀드 잇단 사고에 정부, 규제강화로 선회

4년 만에 순자산 두배 급성장
DLF손실·라임사태에 경고등

몸집을 빼르게 불려온 사모펀드 시장에 부실 경고등이 커졌다. 금융당국은 기존 규제 완화 기조에서 소비자 보호 등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 순자산 규모는 올해 9월 말 기준 400조2900억원으로 약 4년 전인 2015년 말(203조7900억원)보다 두 배로 불어났다.

그간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시

장 육성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는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완화해 사모펀드 투자자 진입장벽을 낮췄다.

하지만 사모펀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도 신중해진 모습이다.

최근 해외금리 연계형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한국형 헤지펀드 1위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조국법무부 장관의 ‘가족펀드’의

혹 등 사모펀드 관련 사건·사고가 터지고 있다.

증권사들이 앞다퉈 판매한 해외부동산 사모펀드에서도 잡음이 나오고 있다.

KB증권이 팔고 JB자산운용이 운용한 호주 부동산 사모펀드는 현지 대출 차주의 계약 위반으로 가입자 피해가 우려돼 지난 9월 초 회수 절차에 들어갔다.

3264억원 중 2000억원 규모의 회수 절차가 끝났지만 800억원 가량은 호주 현지 법령에 따라 자산동결을 해놓은 상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모펀드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겪는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사모펀드 규제 완화’라는 평소의 지론이 서서히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 기조에서 규제 강화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를 둘러싼 잇단 사건·사고 발생에 소비자 보호 강화, 실태 조사 등 여러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사모펀드 전반에 대한 조사 요구가 있었던 만큼 한 번 실태를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손엄지 기자



社告

메트로경제 ‘2019 제약&바이오 포럼’

다시 바이오!

-혁신의 파이프라인

메트로경제가 오는 10월 24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19 제약·바이오 포럼’을 개최합니다. 올해 세번째 열리는 이번 제약바이오 포럼의 주제는 ‘다시, 바이오- 혁신의 파이프라인’입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토종 제약·바이오ベン처들이 혁신 신약 개발을 통해 글로벌 대형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번 포럼에는 김정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정운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대표, 이남희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정책과장, 장은현 퀸텟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이 강연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약 후보 물질 개발과 임상, 기술수출, 허가 등 신약 개발 전 과정에서 실패를 줄이고 글로벌 혁신 신약 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혁신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안정적인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전략도 함께 제시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여러분이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주제 : 다시 바이오 - 혁신의 파이프라인

◆일시 : 10월 24일(목) 오전 9시~12시

◆장소 : 서울 중구 을지로5길 19 페럼타워 페럼홀(3층)

◆주최 : 메트로경제

◆등록 : 메트로경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참가비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당일 카드결제 가능)

◆문의 : (02)721-9826 또는 forum@metroseoul.co.kr

metro[®]

아시아나항공 새 주인 현산·미래 컨소 유력

애경, 경영자료 요구로 마찰
스톤브릿지캐피탈, 실사 불참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을 찾는 과정이 험난한 가운데 HD 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사과정에서 애경이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자료를 요구해 양측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스톤브릿지캐피탈은 실사에 불참해 인수를 포기할 개연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매각작업은 올해 중 진행하려던 본계약이 내년 초로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3일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따르면 적격인수 후보자들은 현재 경영진 프리젠테이션(PT) 등 실사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적격인수후보인 애경,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KCGI, 스톤브릿지캐피탈 등 4곳은

지난 2일 애경과 KCGI, 지난 7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스톤브릿지캐피탈이 PT를 진행했다.

◆ HDC현대산업-미래에셋대우 컨소 유력

이 과정에서 애경은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해 논란을 빚고 있다. 애경이 요구한 자료는 아시아나항공이 리스로 운영하는 항공기 54대에 대한 계약서와 현재 운항 중인 노선별 손익·거점 지역별 인력운영현황.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비공개 자료에 대해선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3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